

20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 개최

자료제공. 방송통신위원회

글.
이진범 방송과기술 기자



인사말 중인 최성준 방통위원장

특별상 부문의 방송기술상에는 세계 최초 ATSC 3.0 기반의 UHD TV 송출과 시험방송을 개시하고, 관련 장비의 국산화와 정합 표준 완성에 기여한 공로로 SBS 뉴미디어개발팀이 수상하여, 방송기술의 위상을 드높였다.

매년 전년도 제작, 방송된 우수 방송프로그램을 직접 시상함으로써 제작인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방송의 품격을 높이는 20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이 올해로 9회를 맞이해 지난 3월 20일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국회의원, 정부 각계인사, 방송사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일선현장에서 제작에 매진하는 방송인들의 노고를 격려한 2017 방송대상에서는 총 338편이 응모하여 대상, 최우수상을 비롯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KBS <태양의 후예> 대상(大賞), KNN <배리어프리 오페라> 최우수상 수상

영예의 대상에는 KBS 16부작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작품성과 선풍적 인기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태양의 후

에는 국내외 많은 시청자에게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인기를 얻었고, 사전제작 방식으로 안정적인 콘텐츠 제작사례가 되었다는 점 등 많은 부분에서 독보였던 작품이다. 최우수상으로는 KNN <배리어프리 오페라>가 오직 소리만으로 오페라를 구현한다는 창의적인 시도로, 라디오 청취자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시각장애인 예술 향유 기회도 높은 수작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역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되었다.

또한, 창의발전 TV부문에서 CJ E&M의 <도깨비>와 EBS의 다큐프라임 <녹색동물>이, 사회·문화 TV부문에서는 SBS의 <수저와 사다리>와 CJ E&M의 <시그널>이 수상하였으며, 지난해 UHD로 제작되어 제주의 색을 있는 그대로 담아 찬사를 받았던 KBS 제주방송총국의 <먼바당 거문당>도 지역발전부문으로 수상하여 총 12개 작품이 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 7개 부문 시상

방송발전에 기여한 방송인 등을 선정하는 특별상 부문에서는 공로상, 바른방송언어상, 방송기술상, 방송작가상, 제작역량우수상 등으로 나누어 시상되었고, 27년간 <배철수의 음악캠프>를 진행하면서 라디오를 통한 대중음악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방송인 배철수가 공로상을, <임진왜란 1592>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역할을 맡아 전쟁의 원인과 이면을 생생하게 재현했다는 평가를 받은 배우 김응수가 올해 신설된 방송출연자상을 수상하였다. 📺

2017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수상작

분야	부문	시상규모	수상작		시상금	훈격	
			방송사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大 賞	1편	KBS	태양의 후예	2천만원	대통령	
	최우수상	1편	KNN	배리어프리 오페라	8백만원	국무총리	
	우수상	창의발전	3편	CJ E&M(tvN)	도깨비	각 4백만원	방통위원장
			EBS	EBS 다큐프라임 <녹색동물>			
			울산 MBC	소음, 그 달콤한 속삭임			
		사회문화	3편	CJ E&M(tvN)	시그널		
			SBS	수저와 사다리			
			부산 MBC	사라진 역사, 귀무덤			
		지역발전	2편	KBS (제주방송총국)	먼바당 거문당		
			현대HCN 부산방송	시간이 빚어낸 부산의 맛			
		한류	2편	MBC	W		
			SBS	판타스틱 듀오			
	다양성	2편	JTBC	비정상회담			
		에스엠브이 (마운틴TV)	UHD 천하무림기행				
	소계	14편			7천 6백만원		
특별상	공로상	1인	배철수		각 3백만원	방통위원장	
	바른방송언어상	1편	KBS 우리말겨루기				
	방송기술상	1팀	SBS 뉴미디어개발팀				
	방송작가상	1인	강은경				
	제작역량우수상	2사	(주)머니투데이방송(MTN)				
			(주)MBC플러스(MBC스포츠플러스)				
	우수외주제작상	1사	(주)아요디아				
	방송출연자상	1인	김응수				
	소계	8점			2천 4백만원		